



[산업] 롯데그룹 화학BU “친환경사업 매출 2030년까지 6배 달성” 06



Economy

코스피	3096.81 (+40.28)	코스닥	963.81 (+6.89)
금리 (2년)	0.980 (-0.014)	환율 (USD)	1117.70 (+1.20) (2일)



청년 구직 뚫친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 10명 중 9명은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청년위원회의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 청년 구직자의 91.7%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쌍용차 단독 금융지원 불가 HAAH 투자 협약 전제돼야”

HAAH 출국... 'P플랜' 지지부진 산은, 회생계획 검토 후 지원 가능

“HAAH오도모티브가 명확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KDB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두고 아직은 자금지원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P플랜은 회생절차 전에 채무자가 인수 예정자를 결정하고 인수 예정자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의 법적 관리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HAAH의 인수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선임부행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잠재적 인수자인 HAAH가 쌍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않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출국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를 다시 방문한다는) 일정 등은 확인 된 바 없어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29일 HAAH 인수를 전제로 법정 단기관리 P플랜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HAAH는 중동과 캐나다의 투자사로부터 2800억원을 투자받는다. 이후 기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지분을 감자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HAAH가 지분 51% 보유

하는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HAAH가 중동과 캐나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안영구 기업금융부장은 “채권단이 HAAH 앞으로 자금조달 관련 증빙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쌍용차와 협의해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그에 근거해 투자사로부터 출자협약서(LOC)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HAAH가 신규자금 25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우선 인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장은 “HAAH 측이 채권단 앞으로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여부는 우선 HAAH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평가 후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산업은행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부장은 “쌍용차 부실화 원인은 대주주의 경영실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왜 산업은행의 책임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안타깝지만 최근 10년간 누적 적자가 1조원이 넘는 회사에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4유리 기자 yul115@

격변의 이커머스 ‘차별화 전쟁’ 동영상 리뷰로 고객신뢰 높인다

▶ 유통가는 지금 영상시대

〈上〉 움직이는 상품 후기

IT 기기와 동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유통업계에서 영상 콘텐츠는 필수요소가 됐다. 기업들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해 온·오프라인 채널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동영상 리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에 없던 서비스와 콘텐츠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편지자 주)

비대면 시대 쇼핑 플랫폼 다변화 매출 올리고 신뢰 확보 ‘두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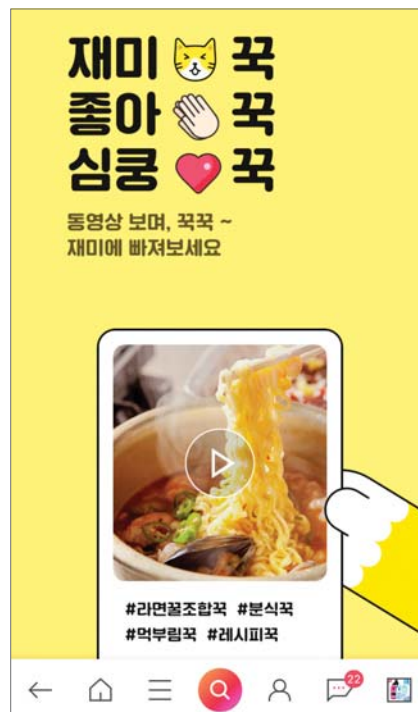
11번가 국내 첫 홈화면 자동재생 도입 이후 거래액 최대 50% 급증

SSG닷컴도 ‘프리미엄 리뷰’ 운영 사진·동영상 포함 후기 상단 배치

유통업계가 비대면 쇼핑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제품 후기를 담아내는 ‘동영상 리뷰’ 플랫폼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기존 후기가 ‘별점’과 간단한 설명이 전부였다면, 최근에는 사진, 동영상까지 첨부해 볼거리가 풍성해지고 있다.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사용 후기를 공유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착안, 업체들도 차별화된 리뷰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11번가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 유일하게 홈화면에 노출되는 상품들이 ‘동영상’으로 자동재생되고 있다. 유통



동영상리뷰 꼭꼭 서비스 /11번가

브에서 영상을 터치하지 않아도 미리보기(자동재생)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11번가 측이 홈화면을 통한 동영상 자동재생 적용 이전 6개월(2019년 1~6월) 경유거래액과 최근 6개월(2020년 1~6월) 경유거래액을 비교한 결과, 평균 30%, 최대 50%까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번가 관계자는 “고객이 11번가 앱에 들어와 가장 먼저 보는 첫 화면인 ‘홈탭’의 주요 상품들을 모두 동영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식품,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동영상 상품의 효율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가 물류나 배송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 행보와 달리 동영상 플랫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차별화’다.

11번가는 이커머스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찾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 지난해 이커머스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동영상 리뷰’를 도입했다. 앱 내에 SNS ‘피드’

같은 영역을 만들어 고객들이 짝막한 영상 리뷰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꼭꼭’ 서비스다. 실제 고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리는 낱것의 영상들은 예비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줬고, 구매로 이어졌다.

실제로 다른 고객들의 동영상 리뷰를 본 뒤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꼭꼭’ 리뷰를 통해 발생한 연간 거래액은 지난해 초(1~3월) 대비 최근(9~11월) 약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월 평균 약 15%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31만개 이상의 동영상 리뷰가 등록돼 있으며 매달 평균 약 10%씩 꾸준히 늘어나는 수준이다.

SSG닷컴은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프리미엄 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 구매 고객이 남긴 후기 중 공감대를 많이 얻은 것을 앱 최상단에 배치해 다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사진과 비디오 리뷰만 보기’, ‘한달 사용 리뷰만 보기’ 등 간편 기능을 설정하면 맞춤형 후기도 볼 수 있어 간편하다.

지난해 7월 롯데하이마트는 비디오 전용관 ‘하트ON TV’를 선보였다. 가전제품에 대한 동영상 리뷰를 비롯해 제품 사용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부터 상품 판매 생방송까지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하트ON TV’ 이용 시 검색창 기능을 통해 원하는 동영상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맞춤 검색 키워드도 추천받을 수 있다. 편성표를 통해 다가올 방송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관심 콘텐츠 업로드 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다 생생한 리뷰를, 판매자는 매출 증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선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산업계, 차세대 성장동력 ‘2차전지’ 주목

전기차 등 글로벌 친환경차 정조준 배터리 소재 생산·서비스 등 진출

전 산업계가 ‘제2의 반도체’로 여겨지는 2차전지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잇따라 관련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한 배터리 전기차는 전년보다 65.9% 증가한 39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이 71억달러에 달한 가운데 배터리 전기차는 이 중 54.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2차전지)도 기업들

의 주요 미래먹거리로 각광 받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주요 배터리 3사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직접 생산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 생산이나 관련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기차 부품인 모터코아의 본격적인 국내 생산에 나선다. 이 회사는 오는 2025년까지 400만대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연간 매출액 75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

획이다.

한화토탈은 충남 대산 공장에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분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설비 증설을 완료하고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 한화토탈은 연간 생산능력을 최대 14만 톤까지 확보하게 됐다.

두산솔루션은 헝가리 현지에서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전지박 생산기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연산 7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2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